

여 지도부 ‘핵무장론’ 공론화...아 “위험천만”

‘北風 국회’...여야 주도권 잡기 공방

더민주 “대북정책 실패, 외교·정보라인 무능” 질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 각종 현안이 한꺼번에 북핵 이슈에 빨려들어가고 있고 여권에서는 핵무장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우선, 북핵 실험은 쟁점법안 협상과 직권상정 논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 4·13 총선 선거구 협상 등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7일 국회의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가동, 북핵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지도부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 북한 수뇌부를 비난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으며, 이

날 제출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일사천리로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덮은 북핵 이슈에 올라타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엇갈린 전술을 구사했다.

새누리당은 북핵 위협에 맞선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약속이나 한 듯 자위권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려는 포석을 간 게 아니냐는 해석

이 나온다. 정두언·하태경 의원은 보복 차원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했다.

더민주도 비핵화원칙을 들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제동을 거는 한편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외교·정보라인 무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원내대표는 핵실험 직후 포착에 실패한 국가정보원이 “패배를 자인했다”고 공세를 폈으며, 백근기 의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 부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핵실험은 당분간 여야 각 진영의 정치적 행보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난해 정기국회 종료 이후 한 달째 ‘식물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준 여야가 핵실험을 계기로 정국경색을 풀기 위해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

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소집될 1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의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수진영에 호재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북풍의 영향력’은 과거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핵 문제는 유권자들의 안보의식을 자극하는 이슈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고 아직 총선까지 3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으며 선거 때마다 북풍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정도 학습효과도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에 장학관 건립...영광출신 대학생 주거 해결”

이게호 더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게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함께 영광 출신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에 재정장학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재정장학관 건립을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 가 공기업 기능조정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과 한수원은 지



방자치단체를 사업 주체로 하고 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추진키로 했다.

장학관은 원전 소재한 영광군을 비롯한 경주시와 울주군, 기장군 등 4개 지자체와 한수원이 공동출자해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해 5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효령노인복지타운 찾아 어르신들 배식봉사

이형석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광주 북구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7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찾아 배식봉사활동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배식봉사를 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자의 편에서 서서 일하는 국회의원 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매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찾아 어르신들께 봉사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은행 출신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전국 최연소(39세) 광역의회 의장과 광주시 경제부시장,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MB 비서관 출신 정용화 安신당 합류 선언

이명박 정부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을 지낸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7일 안철수 신당 참여를 선언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철수 신당에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호남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는 대안세력에 미래이나마 보태고자 동행의 길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 일당독점 체제 속에 사라진 지역발전의 꿈을 되살리고자 집권여



당 (당시)한나라당 후보로 두번 출마했지만 2012년 1월 구정치의 한 축이라 판단해 탈당했다”며 “입당은 오만이었고 광주시민의 가슴에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반성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갑에 출마 예정인 정 이사장의 합류가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의 신당 참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당 광주시당 “총선서 1석이상 당선”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7일 광주 북구 중흥동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총선 결의를 다졌다.

행사에는 심판구<사진> 위원장,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 위원장은 “시당은 30년간 모든 선거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1석 이상을 당선시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에 출마 예정인 정승 서구를 당협위원장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필요하다”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시당은 인사회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신년 참배를 했다. /최권일기자 cki@

여야, 위안부 협상 결과·후보자 자녀 병역 특혜 공방

장관 후보자 청문회

위안부 협상 “진일보”vs“무효” 강은희 차남 軍 과다 휴가 제기 이준식 부동산 투기 의혹 질타

7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안부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타결 이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조치를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이번 협상을 ‘진일보한 합의’라고 평가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강 후보자에게 “명확한 조치를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의서에서 이번 합의를 ‘진일보한 합의’라고 평가한 강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 대해 “20여년 전에 이미 거부한 사항을 피해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달가덕 합의한 것도 모자라 개인 청구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국민의 가슴에 맺속 깊이 새겨진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여성을 위한 무슨 정책을 제대로 진정성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준식 “잘 부탁드립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서 방패막이를 자임했다”며 “그 보은인으로 장관에 내정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남의 산업기능 요원 복무와 차남의 과다한 휴가 등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서면답변 등을 통해 “장남의 군 복무는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고, 차남은 ‘포상휴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과 이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4채를 취득한 것과 관련, “시세 차익이 무려 10억원이 넘는다”며 “배우자도 11번이나 상속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연체하는 등 납세 의무

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에만 관심을 있었다”고 비판했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사실과 함께 장녀만 제외한 모든 일가가 미국 국적 보유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